

# 오늘의 북한 농업 실정은 어떨까?

## ③ 기술·인력동원의 한계

국토통일원·숙명여대  
교수 申 喆 均

### 기술·인력 동원에 한계

북한은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78-84년) 기간에 10만정보를 계획한데 이어 「10대전망목표」에서는 90년대말까지 30만정보를 개간한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북한은 그같은 간석지개간의 장기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돌격대를 투입하는 등으로 계획기간중에 노력총동원을 강력히 추진시켜 나가는 한편, 간석지개간에 따른 농업용수확보와 관련하여 대동강하구에 南浦갑문과 平此 泰川火力발전소(66만Kw)

등의 건설공사를 발주시켰다.

그러나 비대한 간석지개간공사에 소요되는 기술·기능인력 동원의 한계와 강재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機資材 공급부진으로 인해 그 진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즉 84년도末까지의 간석지개간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平此 지구 1.5만정보, 平南地區 1.4만정보, 黃南 지구 9천정보등 모두 3.8만정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3.3만정보를 포함한다해도 당초 2차7개년계획목표인 10만정보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 식량증산위한 허울뿐인 공사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85년도 간척공사 완공계획 대상으로는 平此 獐島 간척공사 黃南 熊島 간척공사, 黃南島의 防潮공사 등을 들수 있다. 이 가운데 平此 獐島 간척공사는 郭山郡 矢臺 里에서 염호리를 연결하는 提防 연장 길이가 약 9 Km에 이르는 공사로 70년대초에 착공해서 현재 7 Km의 提防을 축조해서 약 8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한 黃南 熊島 간척공사는 74년 말부터 殷栗郡 今山浦에서 熊島를 거쳐 과일郡 目沙理를 연결하는 防潮提공사로 현재 6.5Km의 提防을 축조해서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黃南 康翎郡 會館理와 웅진군長 松理를 연결하는 총 1 km의 防潮提공사이다. 水深이 20m 이상으로 되어 있어 최종 물막이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이와같이 간석지 개간 사업을 울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82년 이후 식량증산 특히 쌀 생산문제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북한은 地形 조건상 沓面積이 협소할 뿐 아니라 쌀 생산에 있어 불리한 기후조건과 함께 多收獲 품종개량에 의한 단위 면적 수확고가 정보당 2 백60~3 백60kg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쌀 增産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석지개간에 의한 沓面積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로볼때 북한은 금년의 8.15 해방 40주년과 党 창건 40주년 행사일을 時限으로 간석지개간 總局이 설정한 85년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각지의 개간 사업을 다그쳐 나가며 이를 위한 全 住民의 노력동원과 경제 선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 85년도 「전국농업대회」

---

북한은 85년 1월 3일~6일간 평양체육관에서 「전국농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대회는 지난 79년 1월에 열린 이후 6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지난 한해의 농업 생산 실적을 평가하고 당해 년도의 농업전반에 걸친 사업계획

과 과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김일성을 비롯한 吳振宇, 姜成山, 林春秋, 李鐘玉 등 현직 黨·政高位 간부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대회수준과 비중을 높였다.

이 대회에는 농업분야에 종사해 온 3 대혁명소조원, 농업지도기관일꾼, 협동농장원등 1 만5 천명의 농업지도원 및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 1 천만톤 알곡생산 달성 주장

政務院 「부총리」겸 농업위원장 金昌柱는 대회보고에서 84년도 농업생산 성과에 언급, 김일성이 제시한 이른바 「主体農法」을 관철하여 大當作을 기록, 1 천만톤의 알곡생산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金昌柱는 이미 농업생산의 실적지표가 되는 알곡정보당 수확고가 지난해에 크게 향상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萬景臺 구역 칠곡협동농장에서는 논벼 정보당 수확고가 8 톤7 백43kg,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에서는 8 톤35kg, 신천군 산악협동농장에서는 5 톤5 kg 소출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金은 또 현금분배에 있어 만경대협동농장의 경우 平常 평균 6 천1 백91 원의 현금을 분배받았으며, 칠산리협동농장은 平常 평균 8 톤5 백kg 이 알곡을 분배받았다는등 대외적 선전효과를 노린 特定地域의 결산분배事例들을 나열했다.

## 당초 목표 1 천만톤의 절반 (5 백만톤) 생산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특정협동농장의 엄청난 分配몹을 선전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실제로 지난해의 북한의 농업생산실적은 당초 목표인 1 천만톤의 절반인 5 백만톤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나마 국제적으로 통용되지않는 粗穀 개념인 알곡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이다. 따라서 옥수수, 콩, 잡곡 감자등을 제외한 쌀 생산량만을 따진다면 지난 83년의 생산실적인 2 백12만톤을 약간 넘는 수준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먹는문제해결위한 온갖방법

金은 특히 社會主義 경제건설

의 10대전망목표에 예정된 알곡 1천5백만톤 高地를 점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先決과제라면서 「올해 우리는 먹는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다」고 역설對內的으로 食糧衛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축산물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협동농장작업반당 2~3톤 이상의 고기를 어김없이 생산하며 닭고기 증산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전개, 農家마다 5마리, 탈곡장마다 1백마리, 정미소마다 2백마리 이상씩을 기르도록 강제 할당하기도 했다.

### 농촌 관리운영사업 개선 강조

金昌柱는 대회 보고에서 농업 생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관리 운영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개선 대상으로는 ① 사회주의 分組관리제 및 작업반 우대제의 정확한 실시 ② 협동농장 재정 및 재산관리의 엄격한 제도와 질서확립 ③ 농촌탁아소·유치원 어린이의 보육교양사업의 개선등을 나열했다.

### 사상동요에 깊은 우려 표명

이와함께 金은 농업부문의 일꾼 및 근로자들의 사상적 동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농촌黨 조직들로 하여금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노동력 부족 營農기술 낙후

앞의號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찌기 농업부문에서 自然改造 5대방침(76년 10월)이라는 것을 내 세워 농업을 水利化를 비롯 농경지의 확대등을 강력히 추진했었고, 2차7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알곡 1천만톤 果寧 1백50만톤, 기타 油脂작물과 채소 공예작물 약초등을 크게 증산하여 식량의 自給自足과 농산물수출을 통한 外貨 획득의 증가를 꾀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농업정책은 농촌노동력의 태부족, 營農기술의 낙후, 寒冷전선의피해등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북한전역의 농촌지역에 노력지원명목으로 3대혁명소조를 비롯한 도시

근로자, 사무원, 청년학생 및 軍人 등이 의무적으로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없이 일시적으로 동원되었기에 이들의 농사지원은 오히려 농사일에 지장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감퇴 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

### 부당한 결산, 관리체제에 불만

---

북한농업증산의 고질적인 장애요소로 되는 있는 농업근로자들의營業의욕감퇴는 어제오늘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나 최근들어 그 度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기적인 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의 전개에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외에도 부당한 결산분배내용이라던가 관리체제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

### 생산물의 70% 이상이 공제돼

주지하다싶이 북한의 모든 농경지는 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

도 알곡이 개인것이 아니라 협동농장 조합원 전체의것이 되며 그나마 水利費, 種子代, 트랙터 사용료등 각종 명목을 붙여 생산물의 70% 이상을 分配時 공제해 가는가 하면 각 家口別로 분배된 알곡도 現物로 全量을 대주지 않고 일반 배급량에 해당하는 최소량만 남기고 收買라는 명목을 붙여 現金으로 바꾸어 지급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식량사정은 더욱 곤궁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

### 농경지는 여전히 국가소유 형태

---

최근 中共에서는 현대화정책에 따라 농촌에서 개인 농경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나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농경지를 全人民의 국가소유형태로 묶어 놓고 있어 농업근로자들의營業의욕은 날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 식량난 타결위한 축산독려

---

끝으로 북한은 이러한 식생활난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주민자체 소비단위의 肉類生産을 적극 독려하는 個人畜産政策에 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종 국영축산과 협동농장의 공동축산확대와 병행, 농민부업축산인 個人畜産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供給하자」란 구호를 내건 북한은 요즈음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의 집집승 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해방 40돌, 당 창건 40돌을 맞는 올해에 축산물 생산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고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전국농업대회」에서 「공동축산과 개인축산을 윗배합하여 발전시키는데 대한 黨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독려함에 따라 공동축산에서는 돼지, 닭오리공장단위로 번식을 증대와 함께 종축가내작업반의 개인축산을 위한 종자분양사업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개인축산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당 2.3톤 농가당 1백 kg 이상의 고기생산책임량을 부과 내용은 농가당 돼지 2.3마리,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닭 5마리와 토끼 7~8마리를, 탈곡장은 1백마리, 정미소는 2

백마리 이상의 양계를 의무화 했다.

### 학생별로 의무량 할당하기도

또한 각급학교단위와 지역단위별로는 郡단위 4~6만마리, 道단위 20~30만마리의 토끼기르기와 개인학생별로도 몇마리 이상씩의 의무적 토끼사육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개인축산에 소요되는 사료의 해결을 위해 호박굴, 호박산등 「호박재배」확산과 칩산 먹이풀기지확보도 아울러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6월말 현재로 자체사료 조성결과로 북한 전역에서 2억 2천 5백 60만여포기의 호박재배와 4천 1백여정보의 호박산·호박굴을 조성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부업성격의 축산장려가 그 자체사육량이 주민들의 실질적 이득으로 되기보다는 북한이 개인사육생산목표량을 책정해 놓고 이를 의무적으로 수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육의욕은 차지하고 가축사육이 과외노동으로 인한 이중의 노력에 시달리는 결과만을 초래해 실상 주민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끝>